

여수시 '사랑방 좌담회' 소통 플랫폼 역할 톡톡

현장서 시민 목소리 가감없이 듣기 1년간 지속적 개최 만흥매립장 불법 폐기물 반입 단속 강화 등 해결 모색

여수시의 '사랑방 좌담회'가 지역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자리인데다, 시의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가 운영중인 사랑방 좌담회는 지난 7일 만흥동 상촌마을에서 만덕동 변영회 주민들과 열린 것을 비롯, 지금까지 21차례 열렸다. 지난해 7월 권 시장 취임한 이후 천사백화마을 주민들과 시작한 좌담회는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특히 좌담회를 통해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데다, 매번 열릴 때마다 지역민들의 거침없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여수시도 좌담회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좌담회도 최근 논란이 된 만흥매립장 문제로 주목을 받았다.

권 시장이 직접 추진하면서 마련된 이날 만흥동 좌담회는 여수시가 환경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투기 쓰레기 반입을 수거하지 않기로 하고 매립장이 위치한 만흥동 주민들도 불법 투기 쓰레기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데 따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지역민들은 만흥매립장 매립 기한을 애초 계획대로 오는 2020년 3월까지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음식물 등 혼합물 배출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줄 것과 매립장 내 제방 설치 및 복토 강화, 재활용 수거차량 증차 등을 건

의했다.

지역민들은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권 시장은 이와관련, 20년 이상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수시는 지난 1998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만흥동 주민들에게 매립장 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로 제시한 바 있다.

권 시장은 다만, 현재의 매립률(64.8%)과 관광도시 여수의 현실 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한편, 매립기한 연장의 경우 타지역 사례 등을 파악하고 지역민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여수시의 열린 소통 정책도 순항중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청원 제



여수시는 지난 7일 만흥동 상촌마을에서 주민들과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랑방 좌담회는 지역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수시 제공>

도는 일정 인원 이상이 청원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로 서울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의 국민청원과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수시가 처음 도입했다.

여수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조건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여수시민 한정 청원 시스템을 강화를 위한 2019년 운영계획도 대폭 개선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상의 신축 차질 건립부지 선정 지연

상임위 회의서 결론 못내



여수상공회의소 건물

건물 이전을 추진중인 여수 상공회의소의 부지 선정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여수상의 11일 상의 회관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화관 건립 부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신화관 부지로 물량에 오른 지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회장 3명이 신화관 부지 선정 TF팀을 꾸려 원점에서부터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신화관 건립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여수상의 지난해 9월 6층 규모의 회관 건물을 23억원에 매각했다.

회관 이전 적립금 90억원 등 모두 100억여원으로 신화관 건립에 나섰지만, 건립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 장소로 웅천지구와 삼동지구, 석창 4거리 등이 거론됐지만, 여수상의는 결국 원점에서 부지를 찾기로 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회관 매입지와는 올해 9월까지 회관 건물을 사용하도록 계약했지만, 특약사항으로 신화관이 건립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지와 평당 가격 등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81년 여수시 광무동에 문을 연 여수상의 회관 건물은 여수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로 화제를 모았다.

80~90년대에는 예식장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주차장이 비좁아 불편을 겪었다.

여수상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회관 이전 적립금을 모았으며 최근 건물이 팔리면서 이전 작업을 추진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다음달부터 여수 시내버스 일부 노선 조정

시 '사랑방 좌담회' 의견 수렴

여수시가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조정을 추진한다. '시민과의 대화'나 사랑방 좌담회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의견을 수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13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역민들의 시내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운행횟수를 조정하는 등 운행시간을 조정한다.

전체 노선 수는 62개에서 61개로 축소하고 1151회인 운행 횟수도 1145회로 6회 감축한다.

우선, 95번의 경우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운행 횟수를 줄이는 대신, 막차는 90번과 93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

토중이다. 92번 버스는 90번으로 통합한다.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거론됐던 화장면 소장·석대마을을 지나는 신설도로(국지도 22호선)로 버스를 운행해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여 28번 버스를 투입한다. 106번 버스 종점을 군내에서 화태로 연장하고 25-11번 노선도 종점을 이천에서 오천으로 변경한다.

'사랑방 좌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버스 노선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80, 81, 89, 90번 버스가 웅천꿈에그린아파트, 부영여고, 우미린아파트를 경유하도록 하고 2번 버시 노선은 주말과 공휴일 운행시간을 조정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노선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영·호남 화합을 다지는 연주회가 지난 8일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영호남 화합을 위하여 전남과 경북 아동들이 진행하는 오케스트라 협연 연주회로, 올해로 3회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여수에서 울려 퍼진 영·호남 화합의 하모니

전남·경북 어린이들

오케스트라 협연 연주회

영·호남 화합을 다지는 연주회가 열렸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경북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8일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영호남 화합의 하모니'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는 영호남

화합을 위하여 전남과 경북 아동들이 진행하는 오케스트라 협연 연주회로, 올해 3회째다.

'영호남 화합의 하모니' 연주회는 전남·경북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의 하나로, 음악 전공자나 전문 연주자는 아니지만 음악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있는 학생 69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휘는 전남도 박영집 지휘자와 경북도 최광훈 지휘자가 맡았다.

이날 공연에서는 양태성군의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3악장' 솔로 연주를 시작으로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지금 이 순간', '크시코스 우편 마차', '영화 음악 메들리', '서시', '오페라의 유령', '축배의 노래', '아프리카인 심포니'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거북선 추락사고' 대책·지원 방안 마련 분주

여수시가 거북선 사고 후속 조치로 분주하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이순신광장 거북선 추락사고 지원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대책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여수시는 사고 이후 대책반을 꾸리고 팀장급 전담직원을 두고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 보호자들을 살피고 있다.

또 부상자 긴급구호와 가족 심리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우는 한편, 다른 관

광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긴급 보수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는 이순신광장 전라좌수영 거북선 뷰포인트에서 일가족 7명이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추락, 부상자 5명은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고재영 부시장은 "사고 수습에 힘쓰는 한편,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 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 10% · 용자 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가중치 5.0 부여 -

신상부장관 4개 단계(에너지·전력·전산·재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 시·군에 예산공여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력함에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주)성광에너지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